

몽고의 석유개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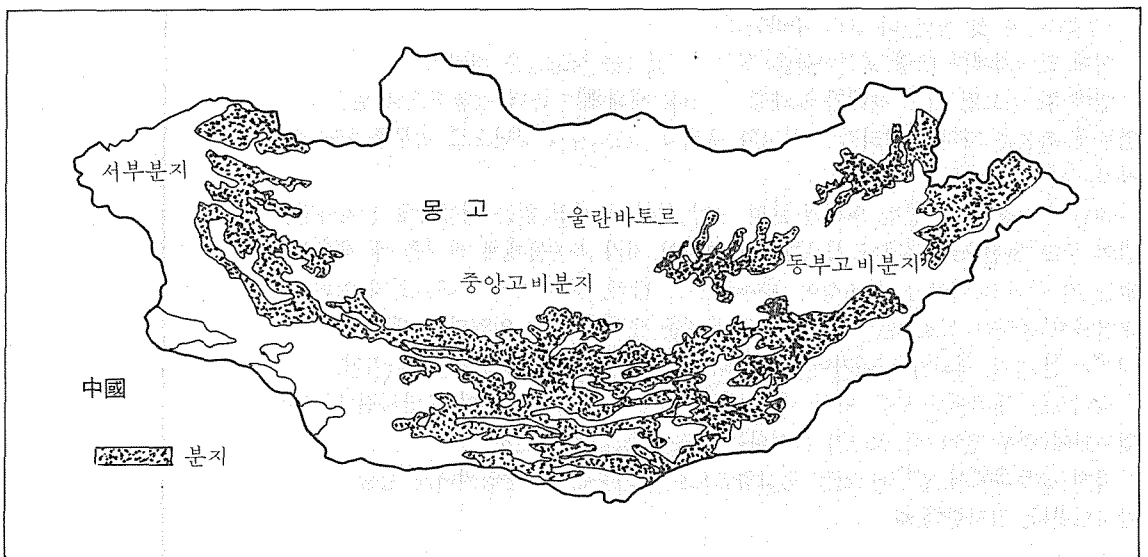
최근 동구권의 자유화와 개방의 물결에 편승하여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몽고가 석유개발부문에 있어서도 외국석유사의 참여를 촉진시켜기 위해 자국의 석유자원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미국 전문회사와 함께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몽고의 석유개발은 그동안 소련과 동구국가들에 의해 추진되어 석유자원의 부존 가능성에 대한 평가자료가 부족하고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최근 몽고 정부는 지난 1939~1989년까지 몽고에서 이루어진 지질 및 지구물리탐사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미국의 Exploration Associates International사와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몽고의 석유개발역사는 지난 3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 200개의 탐사정(이중 80%는 동부 고비분지에 시추)이 시추되었으며, 석유와 가스탐사에 관계된 수천개의 잔공이 역시 시추된바 있다. 또한 몽고 전지역이 60% 가까이 지질구분이 되어 있으며 지질화학 및 지구물리학적 연구가 진행된바 있다. 탄성과 자료는 기록이 확실치 않아 집계되고 있지 않지만 40년대와 60년대에 소련과 헝거리 연구팀에 의한 탄성과 탐사 1,240Lkm를 실시한 바 있다.

소련과 몽고의 지질연구가에 의해 확인된 몽고의 분지는 13개의 대규모 분지와 이것을 다시 소규모 분지로 구분한 59개의 소분지로 구분되고 있다. 이들 분지의

몽고의 주요 분지



<자료> Exploration Associates International of Texas Inc.

범위와 토적층의 심도는 표면지질조사연구와 생산정 및 탐사정 시추 그리고 위성사진분석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 분지에서 발견된 석유는 표면으로 스며나온 미량이거나 탐사정 시추에 의한 소량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유전은 동부 고비분지의 Zuunbayan 과 Tsagaan Els 유전뿐이다.

울란바토르에서 남부에 위치한 Zuunbaybe 유전은 41년만에 발견되어 69년까지 생산을 하였는데 산유량은 1955년 1,040b/d, 1957년 840b/d, 1959년 710b/d 이며 총생산량은 385만배럴이었다. Tsagaan 유전은 탐사에 의해 1953년에 발견되었으나 파라핀함유량과다와 생산시설 및 수송시설 미비로 개발이 중단되었다.

몽고 정부는 90년초에 에너지·철물·지질성을 폐지하고 중공업성을 신설하고 몽고석유사(Mongol Gazryn Tos)를 설립, 정부를 위해 석유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으며 90. 8월에는 다시 조직을 개편하여 중공업성을 폐지하여 MGT는 정부에 직접 책임을 지는 독립조직이 되었다.

몽고 정부는 의회에 石油法과 규제를 제출하여 연말까지 입법을 완료시킬 준비를 하고 있으며, MGT 지질연구팀들을 89~90년사이 150LM의 Nyalga 분지 탄성과 탐사, 유전에 대한 지질 탐사와 각종 지질자료를 축적, 분석하고 있다.

또한 몽고 정부는 '91, 92년에 西方石油社에게 탐사권

Zuunbayan 油田 프로필

低流層 岩石種類	사암
低流層 에너지	수압
低流層 심도	457~489m(1,500~1,604ft)
低流層 폭	1~12m(3.28~39ft)
石油層 延長	Up to 100m(328ft)
공극율	6~24%, 평균 17~20%
침투율	2~1,000md, 평균 5~20md
탄화수소 포화율	22~50%
API	23~38 ° 평균 28
流動點	20~38°C(68~86°F)
파라핀	3~27%
유황	0.11~0.23%
初期온도	49°C, at 1,200m (120°F, at 3,936ft)
초기 低流層 압력	Near hydrostatic
불용해가스	6~30cu m / metric ton (30~150cu ft / bbl)

을 부여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는데 MGT는 Exploration Associate社와 공동으로 「몽고의 石油資源 潛存性」에 관한 보고서를 12.3日 휴스턴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MGT대표단은 西方石油 社들과의 협의를 위해 11.26~12.8까지 휴스턴을 방문할 예정이다. <석유 개발공사, 주간석유뉴스>

□ 도서안내 □

석유의 이모저모

-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